

양계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에서 발생하였고 미국, 캐나다에서 아직도 양계농장, 칠면조 농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걱정이 세계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소 조용하나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타이완도 심각하여 양계장을 전부 무창계사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악성 가축질병과의 전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철새가 항상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라도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조류인플루엔자의 타입도 변화 해 가고 있으니 정말 지속적인 양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후유증에 아니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한 우리지만, 그러한 성공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종전에는 빨리 빨리 정신이 나쁘다고, 고쳐야 된다고 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스피드 경영을 배워야한다고들 한다. 오히려 빨리 빨리 정신의 결과로 IT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강점을 배워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한번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스피드를 조금은 줄였으면 한다.



안 형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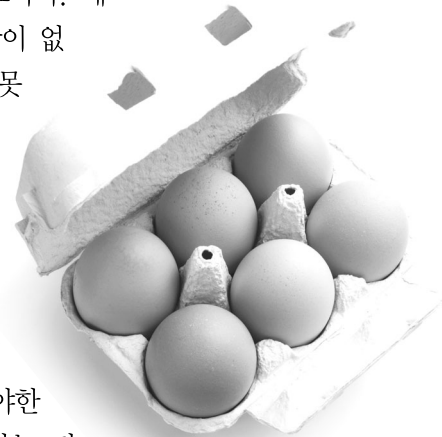
(주)카길에그리퓨리나 아시아 양계기술담당
/ 본지 편집위원

우리뿐 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너무 경쟁만을 강조했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절대로 지지 말라고 교육시킨 결과로 우수한 인재가 탄생되고 경제 및 사회 전반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끄러운 면도 있다.

경쟁을 못 견딘 분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문제, 높은 자살률 등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경쟁하다보니 너도 나도 여유가 없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오직 자신 만을 생각하는 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갑과 을의 극명한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소득의 양극화 등등 우리 사회 전반에 그 후유증, 갈등, 성장통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남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하려는 의지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활력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왕성한 활력이 오늘 날 우리들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부정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말 숨차게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젠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한 템포 늦추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또 남을 배려하며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양계의 악성 질병 발생 문제 해결도 이런 각도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다. 즉, 동물 복지를 고려하면서 동물의 건강 개선, 사육 환경의 개선 등등 닭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규모 경제를 위해 사육수수를 늘려왔다면, 이젠 더 나아가 질적인 성장도 도모했으면 한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항상 무엇이 우선이나? 아니다. 항상 같이 해야 한다? 로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질

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질적 성장이 없으면 양적 성장은 잘못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양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고객인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식품 안전, 우수한 품질, 가격 경쟁력있는 축산물일 것이다.



소비자가 즐겨 찾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항생제 잔류 걱정 없고 질병에 감염된 닭이 생산한 양계산물이 아니고, 건강한 닭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사료) 먹고 생산한 양계산물을 원한다. 이런 요구에 맞게 닭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육하여야 한다. 물론 항생제 사용을 중지한 것이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아직도 항생제 잔류를 걱정하니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가까운 중국을 보면 식품 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국의 축산물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우리 양계산물의 수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양계산물을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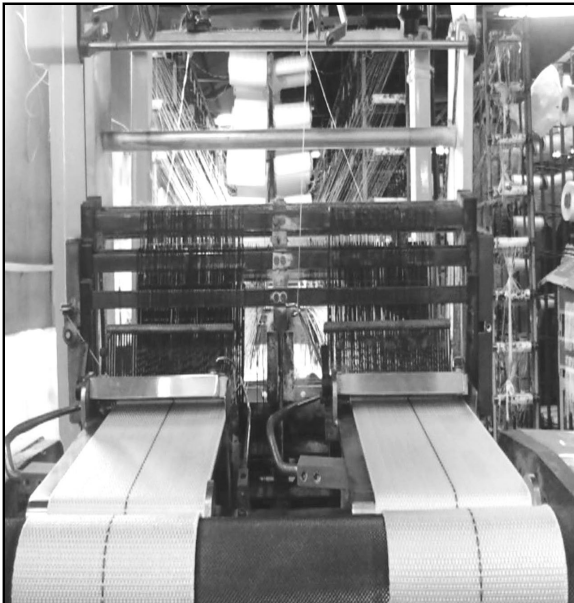
계란을 상온에서 포장도 하지 않고 판매하거

나, 닭고기를 포장없이 쌓아놓고 판매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아직 덜 발전된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수한 품질의 양계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장 또는 공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및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동안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완벽한 냉장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냉장 유통되는 것을 반드시 구입하며, 구입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최상의 품질 상태에서 계란, 닭고기를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품질은 저하된다.

소비자는 가격 경쟁력있는 축산물을 원한다.

요즘 서민 경제는 엄청난 불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계란 및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및 쇠고기 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역사적으로 있으며, 특히 요즘은 돈가가 많이 상승하여 더더욱 가격 경쟁력이 있는 축산물이 양계산물이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고민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즉, 맛있고 안전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축산물이 계란 및 닭고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굳혀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양계산업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양계**



집란벨트 생산전문

품목

집란벨트(100,105mm)
집란벨트 고리

농협 : 356-0171-2888-93(예금주 : 윤기진)

세대섬유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583-1
전화 : (031)856-3546 FAX : (031)856-4251
H·P : 019-489-3510 E-mail : ykja2124@hanmail.net